

복싱 입애지 “4년 뒤 LA에서는 금빛 펀치 날려야죠”

화순군청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54kg銅 한국女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 “사랑받는 종목 된 것 같아 기뻐”

“파리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목에 걸었으니까 4년 뒤 LA에서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된 입애지(화순군청)의 시선은 4년 뒤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하고 있다. 파리의 기적을 발판 삼아 LA에서 더 큰 영광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입애지는 최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말 신기하다. 국민들의 응원이 신기하고 감사하면서도 사랑받는 종목이 하나 더 생겼다고 느낀다”며 “제가 한국 여자 복싱 최초로 메달을 땀지만 제 뒤를 이어 계속 나올 거라고 믿는다. 시작 좋이라고 생각하고 메달에 대해서는 덤덤하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애지는 극적으로 파리 올림픽 본선행 막차를 탔다. 지난 6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2차 세계 예선 대회’에서 54kg급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본선 티켓을 획득하며 대회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출전을 확정 지었다.

그는 “출전권을 마지막에 땀기 때문에 그만큼 지친 상태로 올림픽을 준비했다”며 “체력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었다. 어깨와 다리 부상도 있어서 사전 캠프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다”고 회상했다.



한국 복싱 국가대표팀 입애지(왼쪽)가 지난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키움히어로즈의 맞대결에 앞서 투수 양현종에게 시구 지도를 받은 뒤 선물을 맞고환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하지만 입애지는 실전에 강한 선수였다. 생전 처음으로 겪는 심야 시간 경기에도 차분하게 하루 일정을 정리해 소화하며 컨디션을 조절했고, 2020 도쿄 올림픽 57kg급 첫 경기였던 16강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냈다.

그는 “막상 사전 캠프를 마치고 파리에 입성하니 빨리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였다. 이렇게까지 늦은 시간 경기는 처음이었지만 설레는 마음이었다”며 “경기를 기다리면서 할 일을 수첩에 모두 정리했

다. 폼롤러 같은 스트레칭은 원래 경기 전에 했는데 미리 아침에 했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16강에서 타티아나 레지나 드 헤수스 사가스(브라질)에 4-1 판정승을 거둔 입애지는 8강에서는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네다(콜롬비아)에 3-2 판정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 동메달을 확보했다. 한국 여자 복싱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입애지는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 기쁜 마음보다는 금메달을 꼭 따고 말겠다는 마음이 컸다”며 “감독님, 코치님께서는 ‘금메달 따거나 마찬가지’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저 금메달 따 거 아니냐. 동메달 확보한 거고 준결승에서 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승 진출을 노린 승부욕에도 입애지는 준결승에서 해티스 아크바스(튀르키예)에게 2-3 판정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첫 메달 사냥에 성공한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과를 노리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다. 다음 달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따고 싶다”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선수권,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뒤 LA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한국 복싱과 입애지에게 쏟아지고 있는 관심에 대한 감사함도 표현했다. 그는 폐회식 여자 기수로 나선 뒤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와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지상파 나들이에 나섰고 지난 7일에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키움히어로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입애지는 “운동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출연하니깐 뭔가 더 힘든 느낌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KIA타이거즈에서 시구를 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 기뻐다. 수첩에 적어뒀던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돼 너무 기뻐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를 잘 모르지만 이 열기를 꼭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며 “챔피언스필드에 오기 전에 팀이나 선수 응원가를 일일이 다 들으며 연습했다. 너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응원가도 부르고 새도 복싱도 했는데 KIA 선수들이 승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미소 지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문체부 ‘안세영發’ 배드민턴협 조사 김택규 회장 횡령·배임까지 번지나

“페이백은 보조금법 위반”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에서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에서 무더기로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횡령과 배임에 대한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단은 김학균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48명의 국가대표 선수 중 22명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지난 파리 올림픽 중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직후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국가대표 관리, 보조 사업 점검, 협회 운영 실태 점검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간발표에서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시작으로 특정 임원 운영 업체 수수료 지급, 일부 임원 인센티브 수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국장은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이 있다. 관련 사업은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리그”라며

“2023년에는 회장과 공모 사업 추진 위원장이 주도해 대회 물품을 수의 계약하며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는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에는 회장과 사무처가 주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물품들은 지역 배드민턴 협회로 배분했고, 보조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대의원 총회 기념품으로도 일부 사용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횡령, 배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규 회장을 보좌하는 협회 임원들의 문제도 잇따라 지적됐다.

이 국장은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가 금지되지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과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교부 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 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됐다”며 “일부 임원이 후원사 유지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1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청 육상, 실업단대항육상경기서 금빛 레이스

남 400m계주·여자 100m 제패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체전 전초전 성격의 국내대회에서 메달 레이스를 펼치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기대감을 높였다.

김국영·이재성·강의빈·김태효가 호흡을 맞춘 남자 400m 계주팀을 비롯해 강다슬, 이재성, 노현진이 10일 충남 서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35회 KTFL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했다.

국내 여자 단거리 1인자인 강다슬이 팀의 첫 금메달을 따냈다. 강다슬은 여자 100m 결승에서 11초84를 기록, 이현희(안동시청·11초85), 김다정(안동시청·12초08)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부상으로 재활하며 컨디션 회복에 주력하던 강다슬은 기량 점검을 위해 이번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며 전국체전 메달 전망을 밝혔다.

김국영·이재성·강의빈·김태효는 남자



광주시청 육상팀 김국영(왼쪽부터)·이재성·강의빈·김태효.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400m 계주에서 압도적인 1위 레이스를 펼쳤다.

광주시청은 400m 계주 결승에서 39초28로 2위 서천군청(39초98), 3위 안양시청(40초65)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재성은 남자 100m에서 10초33을 기록, 주지명(경주시청·10초19)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3위는

박시영(포항시청·10초37)이 차지했다. 광주시청 김태효는 결승에 올랐으나 파울로 실격됐다.

노현진은 여자 1만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현진은 35분46초25로 결승선을 통과, 안슬기(삼성전자·35분25초38), 임경희(삼척시청·35분25초52)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최동환 기자

장성 골든 여자축구단, 첫 전국대회 출전서 3위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장성 골든 여자축구단(이하 장성 골든 FC)이 첫 출전한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10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도축구협회에 따르면 장성 골든FC는 지난 8일 경북 안동 강변축구장에서 끝난 제13회 대통

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여자부 경기 4강전에서 경기 화성시 여자축구단에 0-1로 석패하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8월 창단한 장성 골든FC는 2022년 전남도지사기 준우승, 올해 6월 제12회 전남도지사배 동호인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전남도 대표로 이번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장성 골든FC는 예선 첫 경기에서 지난해 우승팀 서울 송파여성축구단에 0-4로 졌으나, 청주 직지여자축구단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이예스터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두며 4강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4강전에서 화성 여자축구단에 아쉽게 지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장성 골든FC는 전남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규모대회 여자부 입상의 쾌거를 이뤘고, 정윤정은 감투상을 수상했다.

최동환 기자